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병도(서천군귀농입협의회 회장)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1. 10. 28

이병도 (서천군귀농입협의회 회장)

1. 충남형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기관 별 역할에 대하여 :

- 충남발전연구원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역재단
- 호서대학 산학협력단
-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
- 충남사회적경제T/F팀
-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의 다양,

사회적기업의 도입기에는 여러기관이 참여하여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겠으나 참여기관의 다수로 인한 혼돈과 교육내용의 중복 등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관수를 축소 정예화하여 기관별 교육 및 멘토링 분야를 전문화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리라 사료합니다.

또한 이론교육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 판매나 생산 경영등 실무상 겪고있는 애로사항들의 해소에 도움이 필요한바,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시스템 개발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 = 공동마케팅제도 운영
- = 각 기업별 제품디렉토리 제작배포
- = 지역 및 접근성 안배를 고려한 상설교육장운영
- = 각기업간 Cross Selling 활성화 방안강구
- = 공동 쇼핑몰 운영
- =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제 운영

- =. 사회적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 =. 원자재 및 재료 공동구매제도 강구
- =. 전국대회 및 박람회 개최
- =. 업종별 Group sales and Marketing 전개
- =. 지역내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MOU 및 프로보노제 도입
- =. 지자체 및 공공기업들로부터의 공공일자리 창출 협력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판다는 슬로건은 기업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으나 숫자를 늘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것은 아닌지?

그 러므로서 양에 치중하다보니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염려되며 일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만 받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위치한 사회적기업들은 기업여건의 열세속에서 생산,유통, 판매를 해결해야 하는 악조건속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 각 지원기관 및 공공기관의 배려와 특성에 맞는 보호책이 일정기간동안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좁은 시장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의 탄생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과 제품생산의 중복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문성 및 시장의 구매력등을 분석, 소수정예 정책으로 전환함이 옳을듯 사료됩니다.

한편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이 부족하여 사회적기업 혹은 이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